

에어컨 바람 쌩쌩...호객행위 도 넘었다

현장르포 **충장로 개문 영업 현장 가보니**

“매출 때문에”... 일부 매장 출입문 상시 개방도 전력량 3배 증가...구청 “단속 권한 없다” 뒷짐

“무더위에 손님들은 끌어들이기 위해 서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점통대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내 곳곳에서 ‘개문냉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 5개 구청 등에 따르면 개문 냉방 영업을 하는 가게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

개문냉방 영업은 출입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유지가 어려워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에어컨을 켜 채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전력 소비량은 문을 닫고 냉방기를 가동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오후 충장로 우체국에서 충장치안센터까지 이동통신 가게와 의류 매장이 대부분이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로 하나둘씩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의류나 신발을 취급하는 일부 매장은 아예 출입문 주변에 물건을 두고 상시 개방하고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의 ‘호객 행위’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셈이다. 한 옷가게 직원은 “확실한 것은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는 것보다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는 게 손님을 이끄는 효과가 있다”며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매출 걱정 때문에 문을 열고 영업할 수밖에 없다”며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계도나 단속이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매장들이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기관은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철 개문 냉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만 정부에

서 ‘에너지사용 제한’ 공문을 보내야만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다. 구청 자체로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에너지절전지킴이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상인들

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문냉방영업 행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1차 경고 조치에 이어 2차 5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5:55 일몰 19:17
월출 21:29 월몰 08:56

장성	20~30	흑산도	22~27
담양	20~30	구례	19~31
화순	20~31	곡성	19~31
영광	20~30	완도	21~30
함평	20~31	강진	19~30
무안	21~29	장흥	20~30
영암	20~30	해남	20~30
진도	21~29	고흥	20~30
신안	22~30	보성	19~30

목포: 만조 04:31 16:36, 간조 09:42 21:45
여수: 만조 11:06 23:25, 간조 05:01 17:01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고흥경찰, 보조금 부당지원 공무원 기소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공무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율을 부풀리고,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1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동강면 장덕리 29만7,000㎡ 부지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나섰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초 민간투자자가 안 돼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했다. /고흥=진중헌 기자

광주천서 50대 숨진 채 발견

광주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천에서 A씨(51)의 시신이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여름옷을 입고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 일부가 부패하고 신분증이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영봉 기자

응급실서 행패 부린 30대 남성 벌금형

병원 응급실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판사 황성욱)은 병원 응급실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구급의료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절대 용인 되

어선 안된다”며 “누번기간 중 응급실서 행패를 부린 A씨의 죄질은 무겁지만,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고 병원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께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병원 침대를 넘어뜨리고 의사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징검다리 연휴 교통사고 잇따라

차량 7대 연쇄추돌·활어 차량 전복

징검다리연휴기간 동안 전남지역 곳곳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2분께 여수시 울촌면 취적터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섀터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상 환자 5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차량정체가 이어져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1시 55분께 함평군 엄다면 광주-무안 고속도로(광주 방면)에서 모닝 승용차가 앞서가던 K5 승용차

를 추돌해 5명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오전 8시 43분께에도 함평군 순불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함평천지휴게소 인근에서 오모씨(49)가 몰던 활어 운반 트럭이 운행중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졌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뒤따라오던 김모씨(53)의 그랜저 승용차도 트럭을 추돌해 오씨와 김씨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광민 기자

만취운전 20대 차량 5대 들이받아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 을 하다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 49분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먼저 들이받은 뒤 운행 중인 B씨(67)의 오토바이를 치고 또다시 차량 1대를 들이받았다. 그 뒤 유턴을 시도한 A씨는 반대편에 있던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 서야 주행을 멈췄다. /김종찬 기자

‘사무장병원 수사’ 무마 대가 50대 집행유예

‘사무장병원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금품을 행진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종영)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된 A씨(57)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6)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년·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검찰청 직원을 팔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수수한 돈을 반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광민 기자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